우리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희국 목사입니다. 벌써 2024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흔적들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주신 동역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힘차게 달려온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맡기시는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

전 세계가 경제적 불황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도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아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지난 10월 있었던 총선에서 승리한 조지아의 꿈 정당은 투표조작 의혹, EU가입 협상 중단, 유럽 재정 지원 차단하며, 러시아와 협력하는 쪽으로 돌아서자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와 대모로 정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새 정부 쪽에서 조만간 계엄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대통령은 퇴임을 거부했고, 국민들은 밤마다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니 계엄을 통해 대모와 집회를 차단하려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계엄이 선포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이동이 통제되며, 밖에 다닐 수 없게 되고, 언론과 기관들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이 통제를 받게 됩니다. 조지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저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지 친구와 함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아벨리(18세)라는 친구이고, 박상준, 정시애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양육한 친구인데, 다음세대에 대한 비전을 품고 대학에서 심리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과 생활이 어려워 저와 같이 일을 하며,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작업을 하며,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저에게는 언어적으로도 그리고 사역적으로도 큰 기쁨이 되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J0316)에서 대학교 등록금과 만약 신학을 함께 배우고자 한다면 신학교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수익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아벨리를 위한 대학교 등록금과 신학교(디두베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벨 리가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개인적인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다친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아프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괜찮아 졌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움직임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아버님이 투석을 받기 위한 혈관 수술을 하셨지만, 투석 과정중에 혈관이 약해지는 문제가 생겨 다시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작은 사고가 있으셔서 무릎을 좀 다치셨어요. 두 분 모두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게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의 방향성에 전문성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 3개월 연수를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선교지에 있으며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묵도하게 됩니다. 이 사역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와 사역들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1. 조지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중동 선교의 교두보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2. 조지아의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 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3. 리디아와 마리나가 지혜롭게 사업을 운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4.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아버님 혈과 제 수술, 어머님 사고로 무릎불편)
5. 맡겨진 사역들

※ 9-12월 사역비 지출 없음.(잔액 : 14,548,227원)

※ 생활비는 1월부터 11월까지 17,213,252원이 후원되었고, 16,814,642원 지출하였습니다.(잔액 : 8,112,641원)